



## “도서전 핵심은 책, 주체는 출판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권양숙 여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 출판계 인사 청와대 오찬 초청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판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국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화합과 다짐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를 마련한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책이야말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다”며 “주빈국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출판계가 새로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독일과 유럽에 한국문학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소개하여 한국문학의 잠재성을 선보이는 한편, 문화올림픽의 현장에서 한국문화의 역량을 세계에 알려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여사는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주빈국 행사를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주빈국 행사의 준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판계 및 문화예술계가 역량을 결집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우창 조직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 및 전 세계에 한국문화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주빈국 행사가 행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권과 세계문화권을 연결시켜 주는 교량 역할을 하여 한국문화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세계문화 속에서 독자성과 세계성을 지닌 한국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판계 및 문화예술계가 뜻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다음달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면 그곳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이것저것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숙소인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위르겐 보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 홀거 에링 부위원장, 쇼르만 도서출판판매협회장, 노르트호프 프랑크푸르트 부시장 등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관계자 8명을 접견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도서전 준비에 별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조직위원회는 권양숙 여사에게 주빈국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아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국에선 독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의해 많은 번역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독일문학을 많이 접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문학은 독일에 번역소개된 것이 적은 것 같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문학을 독일과 세계에 많이 소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나는 민족주의나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민족의 학문적 천재성이나 예술적 감수성이 격세유전<sup>隔世遺傳</sup>한다고 믿는 편”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출판문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급속활자를 처음 만들었듯이 격세유전이 나타나서 다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문**

다음은 조직위원회와 출판계 인사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권양숙 여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권 여사는 조직위 명예위원장 추대를 공식적으로 수락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빈국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우창 위원장님과 조직위 관계자, 그리고 출판계, 문화예술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빈국 사업을 추진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출판시장의 기능을 넘어 참가국의 문화역량을 겨루는 지식문화의 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보여지게 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올림픽의 현장에서 한국문화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다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당연히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도서전의 핵심은 당연히 '책' 일 것입니다. 책 읽음: 사람이 많은 나라가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책이야말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계신 출판인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서전 행사의 주체는 출판인입니다. 주빈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출판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서전 준비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에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운영을 위한 모금과 소자본 출판사들의 좋은 기회분을 지원하는 출판은행 설립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출판계가 우리나라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소의 제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얼마 전에 끝난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우리 문학인들이 참가하여 현지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출판문화의 근간이라고 하는 문학이 유럽인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한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한국문학의 잠재성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번 주빈국 행사는 세계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우리 문화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학, 출판사업과 함께 이번 프랑크푸르트에 소개되는 우리의 공연, 전시, 학술, 영화, 건축과 불교문화 등은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문화적 토양을 다양하게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현재의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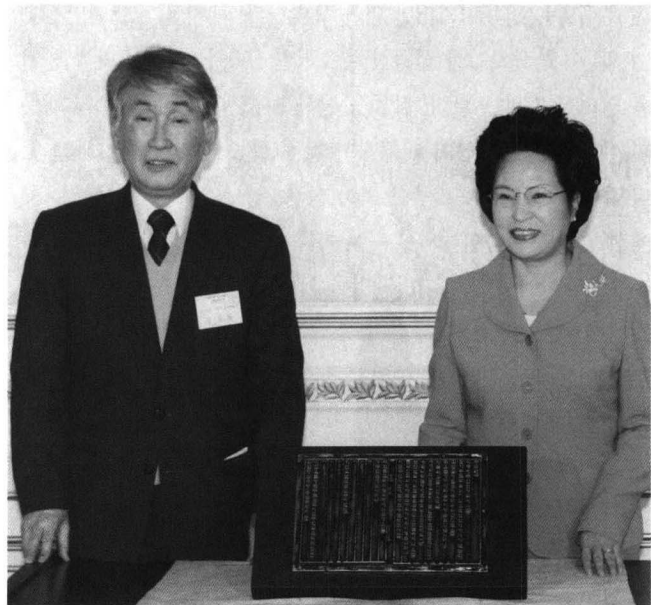
보여줌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한국에 대한 상을 세계인 가슴에 새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빈국 행사가 앞으로 7개월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준비하시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긴밀히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이상으로 앞으로 더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문화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님께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 또한 명예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주빈국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달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면 그곳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이것저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면, 역대 최고의 주빈국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화한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찬이나마 즐겁게 드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위원회 김우창 위원장(왼쪽)과 권양숙 여사. 권여사는 명예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주빈국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신동섭기자 | 사진 제공 청와대